

목장 관리 '낙농헬퍼'에게 맡기세요

정읍시 도우미제도 운영
하루 인건비 20만원
낙농가 86개소 인력 지원
연간 12회까지 이용 가능



정읍시의 한 한우 사육농장. 정읍시는 낙농헬퍼 운영으로 고령 농장주의 일손을 덜어주고 있다.

정읍시가 농장주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으로 낙농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해 낙농헬퍼(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눈길을 끈다.

낙농헬퍼 사업은 젖소 특성상 하루 2회 이상의 착유 작업으로 단 하루도 쉬 수 없는 낙농가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목장 관리에 필요한 헬퍼 요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루 인건비는 20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는 총사업비 1억400만원을 투입해 지역 내 낙농가 86개소를 대상으로 낙농헬퍼를 지원하고 있다.

낙농가는 설·추석 등 명절과 예경사, 교육, 여행, 여가 활용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50%만 부담하면 헬퍼 요원을 이용할 수 있다.

헬퍼 요원은 전직 낙농 목장 운영자나 목장 관리

유경험자 등 낙농 전문 교육을 이수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인 1조)들로 이뤄졌다.

이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낙농가를 대신해 착유와 사료 급여, 축사 청소, 치료 보조 등의 목장 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은 농가당 연간 12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정읍연합낙우회(063-536-0557)로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낙농헬퍼 지원사업을 통해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박기성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법인택시 운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1인당 80만원...13일까지 신청

남원시가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남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일반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소득안정자금 8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

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올 6월 1일 이전 입사해 공고일(8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기사다.

시는 1-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관내 6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오는 13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을 통해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면, 운전기사의 근무기간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택시(일반택시) 기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익산시 청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익산시가 청년들이 꾸준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사후관리 대상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수급자 중 기본체력 검사를 비롯한 신장기능 검사와 고지혈증 검사, 간기능 검사 등 일반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다. 만19-39세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증상에 따라 보건소의 건강증진실, 금연상담

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맞춤형 사후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소모품과 증상 개선을 위한 영양제 등도 지원된다.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사후관리 차원의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 꼬꼬마양배추 김치 일본 수출길...K-푸드 합류

올해 100t 내년 300t 수출 목표

군산에서 재배한 꼬꼬마양배추를 주원료로 한 '김치' (사진)가 이달부터 일본에 수출된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일본 수출은 유동업체인 (주)삼부자컴퍼니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시제품 생산과 식미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로 만들어 최종 결정됐다.

지난 1일 8.2t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00t의 김치를 타마나코마치(미인양배추)라는 브랜드로 수출된다. 또 내년에는 300t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재배를 시작한 꼬꼬마양배추



는 핵가족화에 맞춘 작은 크기의 양배추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단기간에 수출과 국내시

장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에서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재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꼬꼬마양배추를 원료로 한 가공제품 개발에도 노력해 꼬꼬마양배추죽과 함께 이번에는 김치를 개발하게 됐다.

채행석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산의 효자농산물로 자리 잡고 있는 꼬꼬마양배추를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품인 김치를 수출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내년에는 대만까지 수출을 확대하는 등 판매망의 다양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서해 해풍 맞고 자란 고창 토성멜론 출하

고창군 대표작물인 멜론이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고창군은 지난 3일 선운산농협 농산물유통센터에서 토성멜론(회장 장경업) 작목반원이 한자리에 모여 첫 출하 행사를 가졌다. <사진>

고창 멜론은 미네랄과 게르마늄이 풍부한 황토와 청정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육질이 아삭한 맛이 일품이다.

비타민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면역과 피부건강에 좋으며, 레티놀도 포함되어 있어 노화로 인



해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또 고창멜론은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철저한 품질관리와 상품화로 가격 경쟁력 강화와 산지 유통 개선을 통해 전국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19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수확 후 관리와 당도 높은 신선한 멜론을 생산하기 위해 애쓰시는 모든 농가들에게 감사 드린다"면서 "고창 멜론의 품질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로 군민의 행복을 높이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9월까지 운영

심혈관질환·폭염 대비 수칙 교육

순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경로당 이동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이동건강교실은 오는 9월까지 기초검사와 폭염 대비 건강관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교육 등을 한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및 개인별 건강상담으로 심뇌혈관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관리의 중요성과 관심을 높여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하게 지내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등 폭염대비 3대 건강관리 수칙도 병행

한다.

폭염 특보, 주의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당분간 체온도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여름에도 심뇌혈관질환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들은 탈수 현상에 의해 뇌졸중 비율이 겨울보다 여름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각별히 폭염 및 온열질환에 대비해야 한다.

순창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저하된 신체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보건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기여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 기자 jyg@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